

신태용 감독, '실협' 보단 '안정' 택해야

오는 11월 9일·14일 국내서 갖는 두 차례 평가전 초점

신태용 축구를 보여주었다던 그의 각오는 공염불에 그쳤다. 우여곡절 끝에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을 이뤄낸 한국 축구는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지만 현재 이들을 향한 축구팬들의 마음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0월(한국시간) 스위스 빌/비엔노의 티소 아레나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1-3으로 완패했다. 앞서 7월에 가진 러시아와의 첫번째 평가전에서 2-4 패배에 이은 2연패다.

신 감독은 이번 유럽 원정 2연전을 준비하면서 K리그 소속 선수들을 배려해 전원 해외파로 선수단을 꾸렸다.

신 감독은 울리 슈틸라케(독일) 전 감독의 경질 이후 위기에 빠진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취임 당시 "나의 축구 인생을 걸겠다"고 목숨을 걸었다. 아시아최종예선 2연전을 통해 본선행을 확정했지만 경기력이 비난을 받아야했고, 곧바로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전 감독의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신 감독 본인도 "사면초가"라는 말을 통해 절박함을 전했다.

술한 비란 여론 속에서 유럽 원정 2연전을 반전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결과는 홈전 끝 2연패였다.

전원 해외파라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신 감독이 정상적인 전술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드러난 이들의 플레이는 참담했다. 특히 모로코전의 경우 2진급 선수들에게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더 큰 화를 만들었다.

이제 신 감독에게는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

오는 15일 입국하는 신 감독은 오는 11월 9일과 14일(예정) 국내에서 갖는 두 차례 평가전에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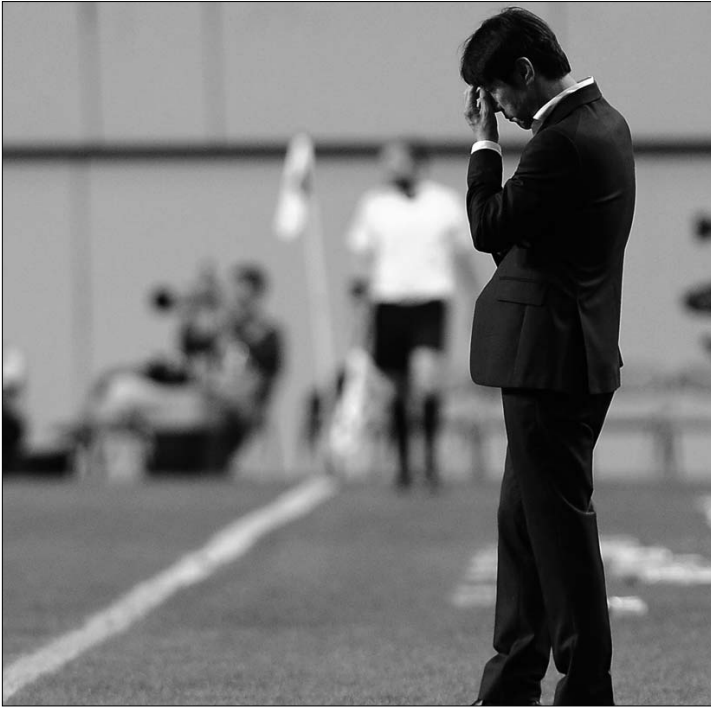
평가전 상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유럽이나 북중미, 남미의 본선 진출팀 혹은 본선에 못 갔어도 그에 준하는 팀을 섭외 할 생각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남은 준비 기간 동안 K리그 선수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 감독은 유럽 원정 2연전에서 그나마 쓸만했던 해외파들을 골라내고 국내파 K리그 선수들을 조합해 평가전 준비에 나선다.

아시아최종예선에서 돋보인 활약을 펼쳤던 이동국(전북), 염기훈(수원) 등 베테랑 선수들과 수비에 안정감을 불어넣었던 '무서운 신예' 김민재(전북) 등이 재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신 감독은 부임 후 총 4경기서 2무2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31일 오후 서울 미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차전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신태용 감독이 후반전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제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기간은 약 8개월이다. 무의미한 실험은 뒤로 하고 안정화를 통해 월드컵 본선을 향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시스

한국 FIFA랭킹, 이제 '중국' 에도 밀린다

수개월째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중국에 추월을 허용하게 됐다.

12일 FIFA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10월 예상 랭킹 포인트는 588점이다. 9월 랭킹 포인트인 659점에서 무려 71점이나 삭감됐다.

9월에 51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러시아(64위), 모로코(56위)에 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포인트를 잃게 됐다. 한국은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러시아에 2-4, 2골이 나온 모로코에 1-3으로 달미를 잡혔다.

10월 랭킹에서는 그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중국에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예상 포인트는 628점으로 한국보다 40점 앞선다. FIFA 랭킹이 실력의 척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기분 나쁜 일이다.

10월 평가전에서 반등에 실패한 한국은 2018 러시아월드컵 4그룹 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FIFA는 10월 FIFA랭킹을 기준으로 조 추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시스

'음원강자' 다비치 '나에게 난' 5개 차트 1위

음원강자 듀오 '다비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비치가 11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공개한 새 싱글 '나에게 난'이 12일 오전 8시 기준 지니 뮤직과 엠넷, 벅스, 올레, 소리바다 등 5개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 6위, 네이버뮤직 13위 등 주요 음원차트 상위권에 안착했다. 음원 강자답이 다수 포진된 10월에 거둔 성과다.

'나에게 난'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미니앨범 '50 X 하프(HALF)' 이후 1년여 만에 발표하는 신곡이다.

다비치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로맨틱 팝 스타일의 가을 발라드다. 히트 메이커 블랙아이드필름과 협업한 곡이다.

다비치는 2008년 정규 1집 '아마란스(Amaranth)'로 데뷔한 이후 '미워도 사랑하니까', '슬픈 다짐', '시간아 멈춰라', '8282' 등의 히트곡을 냈다.



/뉴시스

뉴욕 양키스, 2연패 뒤 3연승 5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 진출

휴스턴 애스트로스 와 월드시리즈 진출권 놓고 격돌 워싱턴, 시카고 컵스 꺾고 디비전시리즈 5차전 승부로

뉴욕 양키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꺾고 5년 만에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했다.

양키스는 1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5차전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5-2로 승리했다.

디비전시리즈 1, 2차전을 모두 패한 양키스는 3차전부터 심기입전해 내리 3연승을 거뒀다.

5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한 양키스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와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격돌한다.

승리의 주역은 연타석 홈런을 친 디디 그레고리우스였다.

그레고리우스는 1회초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린 후 3회 클리블랜드 선발 코리 클루버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날려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양키스 선발 CC. 세바시아가 4⅓이닝 2실점으로 내려갔지만, 후속투수 데이빗 로버슨(2⅓이닝 무안타)과 아폴리스 체프먼(2이닝 무안타)이 무실점 호투를 선보여 클리블랜드를 무너뜨렸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시카고 컵스를 꺾고 디비전시리즈를 5차전 승부로 끌고갔다.

워싱턴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라필드에서 벌어진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에서 컵스에 5-0 완승을 거뒀다.

1차전을 컵스에 내준 워싱턴은 2차전을 잡아 승부를 원점으로 불렀다.

3차전을 패해 흐름을 내줬지만, 다시 4차전을 이겨 승부를 5차전으로 몰고갔다. 전

날비로 하루 연기된 점도 워싱턴에 호재로 작용했다.

스트라스버그가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스트라스버그는 7이닝 동안 삼진을 12개나 잡아내면서 3피안타 2볼넷 무실점 역투를 펼쳐 승리투수가 됐다.

중견수 겸 8번타자로 선발 출전한 마이클 테일러는 1-0으로 근소하게 앞선 8회초 만루 홈런을 터뜨려 승부에 쏠개를 박았다.

워싱턴은 8, 9회 라인인 매드슨과 션 두리틀을 차례로 투입해 컵스의 추격을 차단했다.

컵스는 3안타의 빈공에 시달렸고, 6명의 투수를 투입하고도 쓰러린 패배를 당했다. /뉴시스

디디 그레고리우스(27·뉴욕 양키스)가 1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5차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다.



박진영, 16일 여 가수와 발라드 듀엣곡 발표

JYP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박진영이 1년6개월 만에 가수로 컴백한다.

12일 JYP에 따르면 박진영은 오는 16일 여자 가수와 발라드 듀엣곡을 발표한다.

박진영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여자가수분과 듀엣으로 불렀다면서 '힌트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고 말했다. 그가 신곡을 내는 건 지난해 4월 댄스곡 '살아있어' 이후 처음이다.

박진영은 이와 함께 12월 8일~10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자신의 브랜드 콘서트 '나쁜 파티를 '블루 & 레드(BLUE & RED)'라는 타이틀로 연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같은 달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일 대구 엑스코, 31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을 돈다.

박진영은 "사랑이 주는 슬픔과 뜨거움을 주제로 공연한다"면서 "그에 따라 두 곡의 신곡을 발표하는데 블루에 해당하는 발라드가 16일 공개되고, 레드에 해당하는 댄스곡은 12월 첫 주에 공개된다"고 예고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